

# 민주, '친문 구심점' 임종석 잔류에 일단 안도

### 任 “당의 결정 수용한다” 짧은 글 올려 李 “어려운 결단...매우 고맙게 생각해” 홍영표 등 탈당 가능성 남아 ‘잔불’ 여전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다.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던 임 전 실장은 당이 자신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하자 탈당을 고심해 왔으나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짧은 글을 올리며 잔류를 선택했다.

임 전 실장은 한 때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라던 소문이 돌면서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비이재명)계의 연쇄 탈당을 촉발, 당이 총선을 한 달여 남기고 사실상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민주당 잔류를 선택함에 따라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임 전 실장의 잔류 선택 이후 민주당은 눈앞에 닥친 과국은 막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장 이재명 대표는 이날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당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준 데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임 전 실장 입장에선 매우 안타까웠을 것이다”며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주면 더욱 고맙고, 모두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 역할론’에 대해선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없다”며 “임 실장도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쨌든 큰 과국을 향해 가지는 않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이 출마하려던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임 전 실장이) 수락한다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힘을 모아 원팀이 돼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예고한 대로 탈당할 뜻을 굽히지 않는 등 공천 논란으로 인한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홍 의원은 이날도 탈당 후 민주당 탈당파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 혹은 앞서 탈당한 설총 의원이 구상 중인 ‘민주연합’(가칭)에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향후 거취에 대해 “오늘, 내일 사이에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며 “탈당하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넓게 모으는 것은 기본이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 윤영덕 공동대표...비례후보 30명 내기로 조국의 ‘조국혁신당’·송영길 ‘소나무당’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이 지난 3일 창당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교사를 공동 대표로 선출했다.

창당대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시민사회 대표인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참석해 각각 축사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손을 맞잡는 출발점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출범”이라며 “이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다 함께 손잡는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 크고 확고하게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밝혔고, 윤희숙 상임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우리의 연합정치를 만들었다. 야권의 단결은 필승”이라고 말했다.

임현영 소장은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도 진보연합과 합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루어졌다. 역대 민주당이 이뤘어야 할 일이자 온 국민이 바라던 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낸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용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새 정

당 ‘조국혁신당’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정식 창당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당원 등 3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당 대표로 추대했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나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결심하고 창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지휘하고 있는 ‘소나무당’은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소나무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손혜원 전 의원을 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 여당, 비례에 주기환·김화진 물망

### 7일까지 접수...21일 전까지 확정해야

여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일 4·10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미래는 오는 7일까지 나흘간 국회의원 당사에서 현장 접수를 한 뒤 이번 주 후반부터 공천 심사에 들어간

다. 당 공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간(2-21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특히 호남에서는 대검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



주기환

김화진

민의미래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경우는 국민의힘 당규상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호남 몫으로서 비례대표 순번 배치 때 ‘배려’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수기자

## 정당 지지도, 오차범위 밖 與 우세

### 국민의힘 46.7% vs 민주당 39.1%...尹지지도 41.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만에 소폭 하락했으나 4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 이상 2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2%p)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1%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41.9%보다 0.8%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0.6%p 오른 55.4%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46.7%, 더불어민주당이 39.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2%p 올랐고 민주당은 0.4%p 떨어졌다. 지난해 2월 3주차 이후 약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당은 3.1%, 녹색정의당은 0.7%, 새로운미래는 1.6%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4.2%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